

<컴패션 뉴스레터 1962년 1-2월호>

1961년 12월

기도와 물질로 동역해 주시는 친구 여러분께,

며칠 후면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전에 1961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신약의 두 구절,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이 최근에 제 마음을 축복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저는 정말 마음과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한국에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보육원과 현지 전도사들을 통해 놀라운 열매를 맺으셨고, 또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입니다. 저희는 많은 격려를 받고 있으며, 주님께서 매일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대로 사역을 확장할 것을 기대합니다. 1961년 주님께서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공인회계사의 검토가 완료되면 보고서를 작성하여 <컴패션>의 다음 호에서 전체 연간 보고서와 재무제표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사진)

얼마나 사랑스러운 소녀인지요!

도움이 절실한 보육원 34곳 방문

한국에서 여러분에게 편지를 쓸 때 저는 도움이 절실한 보육원을 최소 26개 방문하고 조사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들 보육원에는 약 1,500명의 어린이가 있었는데요, 실제로는 2,000명가량의 어린이가 있는 34개의 보육원을 조사했습니다. 이 어린이들이 살고 있는 상황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제 혹독한 추위가 닥쳤는데, 이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스완슨 복음 전도회(ESEA, Everett Swanson Evangelistic Association)는 기독교 정신을 신실하게 실행하는 보육원 10곳을 돕기로 약속했습니다. 수백 명의 어린이가 있지만, 현재까지는 단 2명의 어린이만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급한 대로 임시 기금으로 지원금을 보냈지만, 이는 한 어린이당 1달러 정도에 불과합니다! 올가을 경찰이 수백 명의 어린이들을 거리에서 모아 저희 보육원에 보

냈습니다. 한국의 새로운 군사 정부는 거리의 구걸하는 어린이들을 없애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보육원 중 한 곳에서 새로 들어온 65명의 어린이 사진과 양육 기록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다른 보육원에서도 훨씬 더 많은 어린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 공항에서 떠나기 바로 몇 분 전, 광주에 있는 저희 전남 크리스천 보육원(Chunnam Christian Orphanage)의 윤(Yoon) 원장님이 위 150명의 소년들의 사진을 저에게 건넸습니다. 그는 "지난 일요일 경찰이 이 모든 소년들을 거리에서 데려왔고 저에게 그들을 돌보라고 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어린이들에게 입힐 옷은 어디서 구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저는 어린이들이 들어올 때 누더기 차림으로 왔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돈을 빌려 옷을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긴급 지원금으로 200달러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이들이 어디에서 잘 수 있을까요? 그는 이미 310명의 자녀를 돌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너무 많은 어린이들이 봄비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기숙사를 막 완성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구걸하고, 도둑질하고, 폐지와 잡동사니를 팔고, 구두를 닦는 등의 일을 하며 살아온 이 소년들의 얼굴을 보면서 저는 그리스도께서 이들 한 명 한 명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복된 복음을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에게는 먹을 것과 입을 것, 지낼 곳이 필요하고 교육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사역에 필요한 월 8달러를 저희에게 보내어 그들 중 한 명 이상을 후원할 'کمپیشن'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어딘가에 두고 계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그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위 친구들에게 보여주거나, 여러분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어린이 사진들을 동봉합니다. 이 사진들은 모두 저희가 지원하기로 약속한 새로운 보육원 중 한 곳에서 온 사진들입니다. 아직 150명의 소년들의 서류는 받지 못했지만, 여러분이 이 편지를 받으실 때쯤이면 서류가 도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후원을 원하시면 기꺼이 어린이들을 배정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여러분의 충성스러운 지원을 통해 이 감동적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에버렛 F. 스완슨 올림

보육원 건축은 계속됩니다.

많은 보조금과 대출을 통해 저희는 1961년에 새로운 기숙사, 창고, 식당, 목욕탕, 예배당 및 기타 건물을 많이 지을 수 있었습니다. 사진은 부산의 포레스트 앤 레이크 앤젤스 보육원(Forest and Lake Angels Orphanage)에 새 기숙사가 건축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스완슨 목사가 이곳의 여원장님을 설득하여 성경 학교 졸업생이 보육원에 살면서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도록 동의를 얻기 전까지 이곳은 비기독교 보육원이었습니다. 이후 스완슨 목사는 그녀를 주님께 인도했고, 이사회와 직원들 모두가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 스완슨 복음 전도회(ESEA)는 보육원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우리의 118개 보육원에는 아직도 긴급한 필요 사항이 매우 많습니다. 건축자금 순환 대출 기금(Building Revolving Loan Fund)에 당장 10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보육원에 대해 이자를 부과하지 않지만, 매월 정기 지원금에서 소액씩 공제합니다. 한국의 금리는 한 달에 약 5%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저축"하여 "영원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현금이나 재산이 있다면, 이것은 절호의 기회입니다. 크든 작든 이 기금에 대한 기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긴급기도 요청

1. 고아들을 후원할 수 있는 수백 명의 추가 후원자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2. 현지 전도사를 후원할 수 있는 25명의 추가 후원자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의 가족 수에 따라 10달러, 15달러 또는 20달러를 후원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매달 그들의 편지와 그 사역에 대한 완전한 보고서를 받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선교사가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3. 성숙한 고아 소년, 소녀들을 위한 **농업-성경 기술 학교**에 대한 초기 계획을 세울 때 지혜를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어린이들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4. 스완슨 복음 전도회(ESEA) 한국 현지 책임자로 한국에 갈 수 있는 적임자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은 매우 긴급합니다. 목회자도 지원할 수 있고, 자격을 갖춘 평신도도 가능합니다.
5. 스완슨 복음 전도회(ESEA) 사무실 건물을 위한 자금과 부동산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현재 저희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없습니다. 방 다섯 개짜리 스완슨 목사의 집 지하실이 저희 사무실로 사용되었지만,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일일 우편물을 관리하기 위한 직원이 여러 명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시카고 지역이나 다른 곳에 있는 누군가가 이 목적으로 기부하고 싶으신 부동산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저희에게 전화하거나 편지를 보내 주십시오. 스완슨 목사가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라고 말씀하

섰습니다.

6.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확대되는 기회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에 대하여 주님께 감사 찬양을 올리십시오.

왜 아직도 고아가 있습니까?

요즘 저희는 버려진 어린이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고 생활의 기본적 필요가 채워지지 못해 자녀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미쳐가며, 질병에 굴복합니다. 다음은 최근에 받은 어린이 양육 기록에서 발췌한 부모들에게 일어난 일들입니다: "공산주의자에게 살해됨", "어머니 정신병", "결핵으로 사망", "전투 중 사망", "얼어 죽음", "군용차 사고로 사망", "굶어 죽음", "조난 사고로 사망", "자살", "부모 미상, 보육원 정원에서 잠든 채 발견됨", "아버지 사망, 어머니 산에서 땀감을 줍다가 추락사", "한센병으로 사망", "태풍에 익사" 등.

네, 그들은 모두 비극의 무고한 희생자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들을 구주께로 인도하며, 미래에 그분의 종이 되도록 훈련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주일 성경학교 선생님들

현지 전도사(사진 중앙에 앉은 이)의 후원자가 지원하여 개척한 교회 중 한 곳에서 주일 성경학교 교사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브래스카주에 사는 한 훌륭한 농장 가족이 그리스도가 알려지지 않은 이 마을에 자립 교회를 세우도록 돕고 있습니다. 스완슨 복음 전도회(ESEA)가 지원하는 210명의 전도사는 8월, 9월, 10월 동안 3,238명의 새 신자를 세웠다고 보고했습니다. 저희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약 25명의 남성에 대한 사진, 간증 및 사례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을 2년 동안 지원해 주시겠습니까? 지원 금액은 가족 규모에 따라 월 10달러, 15달러 또는 20달러입니다. 오늘 저희에게 편지를 보내주십시오.

(사진)

건축 중인 건물

1스완سن 목사가 한국에서 영예를 얻었습니다.

10월 25일, 스완سن 목사가 한국에서 스완سن 복음 전도회(ESEA) 업무를 시찰하던 중, 한국 정부는 그를 서울의 "청와대" 대통령 관저로 초청하여 대한민국 최고 영예인 공익 훈장(Public Welfare Medal)을 수여했습니다. 한국 역사상 이것을 받은 사람은 13명뿐입니다. 스완سن 목사는 메달을 받으면서 윤보선 대통령에게 자신은 메달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다른 사람들이 한국인을 위해 이루어진 일에 도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자리에는 보건사회부 장관인 정(Jung) 박사, 스완سن 복음 전도회(ESEA)의 한국인 비서인 피터 강 씨 등 여러 인사들이 참석하였습니다. 표창장 낭독과 메달 수여를 마친 뒤 신실한 장로교 신도인 윤 대통령은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합니다."라고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다음은 표창장 전문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실

1961년 10월 25일

표창장

귀하의 뛰어난 공로와 헌신적인 봉사에 대한 인정을 표하며,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부여된 권한에 의거하여 **에버렛 F. 스완سن 목사에게 공익 훈장**을 수여하게 되어 큰 기쁨을 느낍니다. 전도자이자 사회 사업가인 에버렛 F. 스완سن 목사는 1951년 한국전쟁 중에 한국을 처음 방문하여 이곳에서 선교 활동을 관찰하고 진흥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끔찍한 전쟁의 무고한 희생자인 수천 명의 어린이, 과부, 부상당한 참전용사들의 비극적인 처지에 깊은 아픔을 느낀 그는 즉시 미국 국민들에게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그는 전선을 돌며 한국군과 유엔군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위로와 사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한국 국민을 위한 스완سن 목사의 헌신적이고 끊임없는 활동은 지난 10년 동안 결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전국 각지에 수많은 복지 기관과 교회를 건설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으며,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에도 힘썼습니다.

¹참고: 대통령 기록관

(https://www.pa.go.kr/online_contents/archive/president_medialIndex.jsp?activePresident=%EC%9C%A4%EB%B3%B4%EC%84%A0)

스완슨 목사의 따뜻한 인도주의와 우리 국민, 특히 우리 어린이들의 영적, 사회적, 신체적 복지에 대한 헌신은 우리의 깊은 감사를 받기에 충분하며, 그의 진정한 사도로서의 이타적인 사역은 결코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서명: P. S. Y.

보육원 사역은 가치가 있나요?

이 세 명의 훌륭한 젊은이들을 보십시오. 모두 신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등록금과 비용은 후원자들에 의해 지원받고 있습니다. 저는 9년 전 그들이 다른 거지 소년들과 함께 대구의 거리에서 처음 모아져 (트럭 한 대 전체) 저희의 새로운 임시 쉼터로 옮겨졌을 때부터 이들을 알았습니다. 이 보육원은 후에 뉴 라이프 보이즈 앤 걸즈 보육원(New Life Boys and Girls Home)이 되었습니다. 같은 보육원 출신이자 역시 신학교에 다니는 네 번째 청년은 사진 촬영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이 소년들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친 불량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오셨고, 그들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보육원에서 매일 성경을 배우고,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을 읽는 시간을 통해 이 젊은이들은 영적으로 성숙해졌습니다. 그들은 전쟁으로 고아가 되었지만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나갈 것입니다. 저희 보육원 출신의 더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한국의 성경 기관, 신학교, 대학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보육원 원장님들이 만났습니다.

스완슨 복음 전도회(ESEA)의 설립자이자 대표이사인 에버렛 스완슨은 최근 한국 방문에서 총 104개의 보육원을 방문하는 것 외에도 모든 원장님들을 한 자리에 모아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각 회의를 축복하셨다고 보고합니다. 회의에서는 그가 WARM 의류 프로그램을 위해 총 66,000달러를 모금해 한국으로 가져온 소식이 전해졌으며, 300,000달러 상당의 비타민과 의약품을 배포하기 위한 계획도 세워졌습니다.

이들은 한국에서 가장 마음이 넓은 기독교인들입니다. 이들은 목사, 의사, 장로, 및 집사들입니다. 모두가 스완슨 복음 전도회(ESEA)가 상호 사랑과 기독교적 나눔의 장이라는 축복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위 사진은 전체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사진작가는 두 번 촬영해야 했습니다. 원장님들 중 두 명만 오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200명의 스완슨 복음 전도회(ESEA) 후원 전도사들이 많은 축복을 받으며 회의를 위해 모였습니다. <کمپا션>의 다음 호에 이들의 사진이 게재될 예정입니다.

유익한 소책자를 동봉합니다.

²기독교 반공산주의 십자군(Christian Anti-Communism Crusade)이 발행한 ³"인슈런스 어게인스트 커뮤니즘(Insurance Against Communism)"이라는 제목의 멋진 소책자를 동봉합니다. 주의 깊게 읽어 보시고, 출판사로부터 더 많은 책을 주문하셔서 여러분의 친구와 지인들에게도 나눠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책 뒷표지에 스완슨 복음 전도회(ESEA)에서 간단한 메시지를 적었습니다.

우리의 실행 지침

우리는 이 대규모 기부금의 관리에 있어 누구도 우리를 비난할 만한 점이 없도록 철저히 주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8:20-21, 확대번역 신약)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까?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재산을 주고 싶은 사람에게 남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잃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 교회 및 기타 기독교 단체를 잊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대학이나 신학교 등을 통해 그들의 고아 자녀를 위한 준비를 하고 싶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필요한 만큼의 금액을 보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목적을 위해 유언장에 일정 금액을 포함시켰습니다. 혹시 이미 그렇게 하셨거나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어린이가 아닌 스완슨 복음 전도회(ESEA, Everett Swanson Evangelistic Association)에 유산으로 남기십시오. 그런 다음 여러분의 행동과 의사를 저희 사무실에 알려 주십시오. 저희는 이를 기록에 남기고, 여러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여러분의 소망에 따라 엄격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유언장을 작성하십시오. 이것은 매우 중요하며,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의 청지기입니다. 영원한 집으로 돌아갈 때도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질문이 있거나 저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지를 보내주십시오. 스완슨 목사가 특별히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²기독교 반공산주의 십자군(Christian Anti-Communism Crusade): 1953년 호주 출신 프레드 슈워츠 박사(Fred C. Schwarz)가 세운 단체(<https://www.schwarzreport.org/about>).

³인슈런스 어게인스트 커뮤니즘(Insurance Against Communism): 프레드 슈워츠 박사(Fred C. Schwarz)가 저술한 소책자 (https://digitalcommons.acu.edu/cgi/viewcontent.cgi?params=/context/crs_books/article/1504/&path_info=ACU_InsuranceAgainstCommunism_Schwarz.pdf).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유연장에 스완슨 복음 전도회(ESEA)를 포함시키기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면, 여러분은 그분께 순종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의 부탁 때문에 이 일을 하지는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므로, 기부와 유증은 그분의 감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을 원하며, 주님께서 지체하시더라도 현재와 미래를 위한 그분의 계획을 신뢰할 것입니다. 아멘.

아직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고아들에게 선물하기 위해 또는 보육원에 일반 소포로 보내는 모든 물건이 소득세 공제 대상이라는 사실을 모르셨을 것입니다. 새 상품의 실제 비용, 중고 상품의 공정한 시장 가치, 그리고 지불한 우편료 전액이 공제 가능합니다. 양식에 전체 금액을 입력하고, 스완슨 복음 전도회(ESEA, Everett Swanson Evangelistic Association)에 기부했음을 명시하십시오. 한국 주소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의 간증

글: 문경화(Moon Kyung Hwa) 양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지 8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지 생각하면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교인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집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탁구를 하자고 불렀습니다. 저는 탁구가 재미있어서 일요일이 아니어도 꽤 자주 교회에 가곤 했습니다. 한 고아 친구가 일요일 아침에 집으로 와서 저를 교회로 데려간 건 제가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을 한창 즐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안은 할아버지 때부터 불교 집안이어서 교회에 다니는 것에 대해 말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는 저를 데리러 올 때마다 매번 혼자 교회에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방학 동안 교회에서 특별한 강의를 진행된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저는 결국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수요일 저녁과 주일에 교회에 가는 시간이 점점 즐겁고 기쁘게 느껴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에 가지 않고는 못 배기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자 아버지는 제가 교회에 다니는 것을 눈치채시고는 온 힘을 다해 저를 막으려 하셨습니다. 그 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저는 성탄절 합창단 리허설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심하게 야단을 치셔도 저는 계속 교회에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학비를 주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하셨지만, 선한 싸움에서 제가 이겼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들어갈 즈음부터는 제 종교 활동에 대한 부모님의 태도가 온화하고 우호적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식사 시간에 저희는 배를 채우는 대신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병에 걸리셨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이 모든 역경은 주님께 대한 믿음을 더욱 강하게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점점 더 예수님을 의지하게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너무 배가 고파서 제대로 걸을 수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제가 잘 살았더라면 주님을 찾을 기회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의 병이 악화되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구원받지 못한 채 돌아가셨고, 이것은 저에게 큰 슬픔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교회에 가고 함께 찬송을 부르는 일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 된 이후로 주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법,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삶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부족한 제 믿음의 간증을 마무리하면서, 제 미래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로 결심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 양은 캘리포니아에 사는 훌륭한 한 가족의 지원으로 좋은 선교 병원(Mission Hospital)에서 간호사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저희 그레이트 라이트 과부의 집(Great Light Widows' Home)에 살고 있습니다.)